

2015년도 연극 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심사평

<연극 창작산실 - 시범공연 지원>

2015년 연극 창작산실 시범공연 지원사업에는 총 86건이 접수되었으며, 총 10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심의위원회는 작품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공연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의 심의기준을 기본으로 검토하면서 심층 토론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심의위원 간 심층 토론 시에는 희곡의 완성도, 새로운 주제 및 형식에 대한 탐구, 공연단체의 역량, 향후 무대화 시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작품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작품의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참신함 측면에서는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기존의 연극과 차별화된 주제와 형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작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 선정작이 앞으로 독회와 제작과정을 거쳐 더욱 발전하리라 기대한다. 2015년 연극 분야 창작산실 사업을 통해 좋은 작품들이 탄생되기를 바란다.

2015 연극 창작산실 심의위원 일동